

清華簡 <周公之琴舞> 주해

이연주*, 張崇禮**

<목 차>

1. 머리말
2. 清華簡 <周公之琴舞>의 내용과 발견 의미
3. 清華簡 <周公之琴舞> 역주
4. 맺음말

1. 머리말

<周公之琴舞>는 2013년 1월 발표된 清華簡¹⁾ 3차 연구성과에 포함된 6종 8편의 전국시대 고문헌 중 1편으로²⁾ 주공과 成王이 지은 것으로 기록된 악장 형식의 시들을 수록하고 있다. 제목에 보이는 琴舞란 琴으로 반주하고 그 음악에 맞추어 춤추며 시가를 노래하는 음악, 춤, 노래가 결합된 형식을 뜻하며, 따라서 상기 시는 琴舞에서 歌의 가사가 되는 樂詩라 할 수 있다. 시의 내용은

* 이연주: 강원대학교 중문과 교수

** 張崇禮: 中國 北華大學 中文系 教授

- 1) 清華簡(清華大學藏戰國竹簡)은 2008년 清華大學이 기증받아 2년여 기간에 걸친 보존 처리와 복원 작업을 거쳐 공개한 전국시대 죽간으로 지금으로부터 약 2,400여 년 전인 戰國시대의 경서들이 주를 이룬다. 2010년 말 1차 연구성과가 발표된 이후 매년 한 차례씩 연구성과가 발표되고 있으며, 2015년 4월 제5차 연구성과가 발표되었다. 清華簡에 대해서는 이연주·張崇禮(2014a)에서 개괄하였다.
- 2) 공개된 <周公之琴舞>는 모두 17支의 죽간으로 이루어졌으며, 15支의 경우 절반 정도가 소실되었다. 제1支 죽간 뒷면에 <周公之琴舞>라는 제목이 기재되어 있으며, 매 죽간의 뒷면에 숫자가 기록되어 있어 순서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공이 백관대신들에게 하는 훈계와 성왕이 스스로를 경계하는 말들을 담고 있으며, 주공의 시로 보이는 성왕에게의 당부와 대신들에게 하는 성왕의 훈계, 성왕과 주공이 선조들에게 하는 기원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周公之琴舞>는 주공이 武王의 공덕을 칭송하기 위하여 만든 춤으로 알려지고 있는 <大武>의 樂章³⁾과 비교되는 가운데, 온전한 악장형식을 보여주고 있고, 逸詩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 중 한 수는 《詩經》의 <周頌·閔予小子之什·敬之>와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보여 학계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본고에서는 <周公之琴舞>의 내용과 발견 의미를 살펴보고 이를 역주한다.

2. <周公之琴舞>의 내용과 발견 의미

출토된 <周公之琴舞>에는 10악장에 걸쳐 19수의 시가 포함되어 있다. <周公之琴舞>는 편성 및 내용상 의문시 되는 부분들이 있는 바, 앞부분에서 주공과 성왕이 각기 9악장의 시를 지었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와 차이가 나며, ‘成王作敬愬琴舞九遂’ 아래 부분에 성왕이 지은 것으로 보이는 시와 주공이 지은 것으로 보이는 시가 혼재되어 있어 혼란을 주고 있다.⁴⁾ 각 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周公之作’ 아래 제 1章: 천자가 본분을 잃지 않도록 잘 감독하고 보필할 것

3) <大武>는 무왕의 商 정벌 후 주공이 무왕의 공로를 칭송하기 위하여 만든 춤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左傳·宣公十二年》의 기록에 따르면 《詩經·周頌》의 時邁, 武, 桓, 賁 등의 시는 각기 <大武>를 위해 만들어진 頌, 즉 <大武>의 악장을 구성하는 시들이다. <大武> 악장에 대해 논한 논문으로는 오만중(2013b)이 있다.

4) 이와 관련해, 李守奎(2012a)는 주공이 지은 시는 周公作敬愬琴舞九遂(이하 周公作) 아래 첫 章 1수에 국한되며 나머지 있어야 할 8章은 소실되었고, 成王作敬愬琴舞九遂(이하 成王作) 아래 9章의 시는 모두 성왕의 시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李學勤(2013b)은 成王作 아래에 나오는 9章 중 몇 章이 내용을 볼 때 주공의 시라고 주장하고 있다. 周公作 아래에 있어야 할 8章이 모두 소실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成王作 아래에 나오는 9章의 시와 관련해서는 李學勤(2013b)의 견해가 타당해 보인다.

을 (대신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으로, 주공의 시다.

‘成王之作’ 아래 제1章: 스스로를 경계하는 시로 하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며 하늘이 자신을 도와주기를 바라는 내용으로, 성왕의 시다. 《詩經·周頌·敬之》와 동일한 시로 판단된다.

2章: 훌륭했던 선조들을 우러르며, 이들을 본받아 천자를 잘 보필하고 힘써 일해 나라를 안정되고 흥하게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내용으로, 이 시는 ‘成王作’ 아래에 있지만 주공의 시로 추정된다.

3章: 군왕의 덕에 이를 수 있도록 늘 삼가고 부지런하며 행동거지를 조심하도록 스스로를 경계하고 선조들이 자신을 부단히 감독해주기를 바라는 내용으로, 성왕의 시로 보인다.

4章: 어린 천자(成王)를 보호하고 감독해주기를 선조들에게 기원하고 성왕에게 하는 당부를 담고 있는 내용으로, 주공의 시로 보인다.

5章: 하늘의 덕을 칭송하고 선한 덕이 있는 자를 발굴, 추천해주기를 (대신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으로, 成王의 시로 보인다.

6章: 어린 나이에 즉위, 종묘를 이어나갈 책임이 막중함을 느끼고 스스로를 경계, 조심하고자 하며, 이러한 책무를 잘 수행하고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자신을 잘 보필하고 감독해주기를 대신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으로, 成王의 시로 보인다.

7章: 선조들을 축원하고 스스로를 경계하며 대신들에게 선조들을 추념하고 하늘의 일을 두려워 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으로, 成王의 시로 보인다.

8章: 소실된 부분이 있어 전체 내용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천자가 덕을 갖추어 위엄 있는 용모와 자태로 하늘의 은택을 구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으로, 주공의 시로 추정된다.

9章: 덕을 갖추고 언사를 중요시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으로, 成王의 시로 추정된다.

이처럼 <周公之琴舞>에는 주공이 백관대신들에게 하는 훈계와 성왕이 스스로에게 하는 경계, 주공이 성왕에게 하는 당부와 어린 천자(성왕)를 보호,

감독해주도록 선조들에게 하는 기원, 성왕이 대신들에게 자신을 잘 감독, 보좌 해주도록 훈계하는 내용과 선조들에게 하는 기원과 축원, 그리고 대신들에게 선조를 추념하고 하늘의 일을 두려워하도록 훈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 덕을 갖추고 특별히 위엄 있는 행동거지와 언사를 중요시해야 함을 강조하는 내용도 보인다. 이들 내용은 《詩經·周頌》이나 《書經·周書》 등에 보이는 우환의식과 대신들에게 하는 훈계와 내용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할 수 있다.

<周公之琴舞>의 발견이 학계의 지대한 관심을 끄는 것은 무엇보다 <周公之琴舞>가 온전한 악장형식으로, 啓와 亂으로 구분되는 선진시기 악장 형식이 분명하게 명시되고 있다는 점이다.⁵⁾ 方建軍(2014)에 따르면, '啓'는 商代에 사용되던 음악 용어로, 하남성 안양(安陽) 은허에서 출토된 商말기의 編磬 3건에 각기 '永啓', '永余', '天余'라고 새겨져 있는 것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다. 또 《禮記·樂記》에 "武亂皆坐, 周召之治也(<大武>를 연행(演行)함에 있어 끝날 무렵(亂)에 연행자가 모두 꿇어앉은 것은 주공과 소공이 예악을 일으켜서 무력으로 다스리는 일을 그만둔다는 것을 상징합니다.)"⁶⁾라고 해 <大武>의 '亂'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으며, 《論語·泰伯》에서도 "師摯之始, 關雎之亂, 洋洋乎盈耳哉(악사인 摯가 처음 관직에 나가 연주하던 關雎의 끝장이 양양하게 귀에 차는구나.)"라고 해 《詩經·國風》에 실린 <關雎>의 악곡 연주 시의 '亂'부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더불어 《樂記》에 보면, "始奏以文, 復亂以武(처음 연주할 때는 文樂으로 하고, 끝은 武樂으로 한다.)(<樂象>), "再始以著往, 復亂以飭歸(다시 시작할 때는 과거를 추념하고, 다시 끝날 때는 미래에 대한 훈계이다.)"(<魏文侯>)라는 구절이 있어 樂章형식으로서의 '始'와 '亂'이 언급되고 있다.⁷⁾ 이처럼 고대의 악장형식은 익히 알려져 있었지만, 啓와 亂이

5) 이에 반해 <大武>의 경우는 《左傳·宣公十二年》기록을 바탕으로 《詩經·周頌》의 時邁, 武, 桓, 賚 등의 시가 그 악장을 구성하던 시였음이 알려지고 있을 뿐이다.

6) 《禮記·樂記》(2007), 52쪽의 번역을 참조함

7) 《論語正義》에서 위 《樂記》의 구절을 인용하면서 "始라는 것은 樂의 시작이며, 亂이라는 것은 樂의 끝부분이다(始者樂之始, 亂者樂之終)"라고 하였다.

나란히 악장에 등장한 것은 <周公之琴舞>가 처음으로, <周公之琴舞>의 발견은 周代の 樂詩와 樂의 형식을 연구함에 있어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한편, <周公之琴舞>에 실린 성왕의 시 제1장 啓의 내용이 《詩經·閔子小人之什·周頌·敬之》의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⁸⁾ 《詩經》頌詩의 용도 및 이의 樂舞와의 관계에 대해 재차 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⁹⁾, <周公之琴舞>의 詩들이 《詩經·周頌》과 동일한 성격의 시였거나 <周頌>의 일부였을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다.¹⁰⁾ 또한 <周公之琴舞>에서처럼 현존 《詩經》의 시와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격을 갖는 逸詩의 발견은 현본《詩經》판본이 편집되기 이전 시기에 《詩經》원시 판본이 어지러웠을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하며, 사마천이 《史記·孔子世家》에서 제기한 ‘孔子刪詩’설¹¹⁾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증거로 주장되기도 한다.¹²⁾ 더불어 《詩經》의 流傳, 編訂過程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보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¹³⁾

8) 참고로, 《詩經·閔子小人之什·周頌·敬之》전반부는 다음과 같다. “敬之敬之。天維顯思，命不易哉。無曰高高在上。陟降厥士，日監在茲。”

9) 종묘에서 제례악으로 쓰이던 頌의 경우 대체로 춤이 이들 시와 불가분의 관계였음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금번 <周公之琴舞>의 발견은 頌시의 용도 및 樂舞와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10) 李學勤(2014)은 이를 들어 <周公之琴舞>는 10章으로 이루어진 樂詩로 이에 수록된 시들은 《詩經·周頌》과 동일한 성격이라고 했으며, 清華大學藏戰國竹簡整理小組(2012)는 그 가운데 제1장의 啓가 현본 《詩經·敬之》임에 근거하여 이 시들이 <周頌>의 일부본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11) 《史記·孔子世家》에 “古者詩三千餘篇，及至孔子，去其重，取可施於禮義，三百五篇，孔子皆弦歌之，以求合韶武雅頌之音。(옛날부터 詩가 3천여 편이 전해져 왔는데 공자께서 그 중 중복되는 것은 빼고 예의에 합당한 것만을 골랐으며, 이렇게 뽑은 305편 모두를 악기를 연주해 노래 불러 ‘韶’·‘武’·‘雅’·‘頌’의 끝에 맞추고자 했다.)”고 해, 《詩經》의 ‘孔子刪詩’설을 제시했다. 《詩經》의 ‘孔子刪詩’설과 이후의 역사적 논쟁에 대해서는 김학주(2010) 38~40쪽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12) 이에 대한 논문으로는 劉麗文(2014), 徐正英(2014a), 徐正英(2014b) 등이 있다.

13) 《詩經》詩의 流傳問題는 이연주·張崇禮(2014b)에서도 논하였다. 오만중(2013a)은 <周公之琴舞>에 수록된 여러 편의 시 중 한 수만이 현본《詩經》에 수록되어 있음에 주목해 《詩經》판본이 악장형식의 판본에서 독본(文本)형식으로 바뀌어 간 과정에 대해 고찰하고 이런 변화가 공자를 기점으로 시작되었다고 주장하였다.

3. 清華簡 <周公之琴舞> 역주¹⁴⁾

【간문1】

周公作[1] 多士敬(徹) 怷(愷) [2] 琴舞[3] 九紘(遂) [4]。

元[5] 內(入) [6] 啓[7] 曰：“無愆(謀) [8] 官(享) [9] 君，罔 籲(墜) [10] 元(其) 考[11]，官(享) 佳(惟) 愆[12] 市(斯) [13]，考佳(惟) 型[14] 市(斯)。” 학설

【주석】

[1] 整理者(2012): 作은 만들다, 제작하다의 의미로 쓰였다.¹⁵⁾

[2] 整理者(2012): 多士敬愷는 ‘多士徹愷’의 통가로, 백관대신들에게 경계하고 삼가야 할 것들을 알리다, 훈계하다의 뜻이다. 多士는 여러 대신을 의미한다.

[3] 琴舞는 퓌리로 반주하고 그 음악에 맞추어 시가를 노래하며 춤을 추는 음악, 무용, 노래가 결합된 형식이다.

[4] 整理者(2012): 紘은 簡文에서는 ‘卒’ 또는 ‘遂’의 통가다. <爾雅·釋詁>에 “卒은 마치다(終)의 뜻”이라고 했다. ‘九紘’의 의미는 ‘九終’, ‘九奏’와 같으며, 禮를 행하며 아홉 장을 연주하는 것을 말한다.

[5] 整理者(2012): 元은 시작하다의 뜻이다.

14) 본 역주는 清華大學藏戰國竹簡整理小組(이하 整理者라 함)가 연구 발표한 <清華大學藏戰國竹簡(三)>(上海: 中西書局, 2012)을 참고하고 그밖에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검토해 작성하였다. 張崇禮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연주가 우리말로 역주하고 내용과 발견의미 등을 정리하였다. 주석부분에서 整理者 또는 개별 학자의 견해를 인용할 때는 학자명과 발표 연도를 명시하였다. 이들의 견해를 소개한 후 부연해 저자의 의견을 밝힐 때는 출처 뒤에 ‘:’을 두지 않았다.

15) 본 주석을 포함한 일부 주석의 경우, 본 문헌상에서 해당 글자의 의미가 일반적인 의미이지만 고대 죽간에서 해당 글자가 여러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바, 주석에서 그 의미를 밝혔다.

[6] 內는 入의 통가로, 들어가다의 뜻이다. 元入은 (연주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7] 整理者(2012)는 아홉 장을 악기로 연주하는데 매 곡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시작 부분을 ‘啓’라 하고 그 마무리 부분을 ‘亂’이라 한다고 했다. 啓와 亂은 고대의 악장형식으로 고문헌에서 익히 알려져 있었지만, 啓와 亂이 분명하게 대비를 이루며 나타난 것은 <周公之琴舞>가 처음이다.

[8] 攄는 도모하다, 계획하여 도모하다, 도모의 뜻으로 풀이된다.

[9] 享은 當이다. 이처럼 ‘當’으로 풀이되는 ‘享’은 배필의 의미로, ‘받들어 모시다’의 의미가 파생되었다.

[10] 整理者(2012): 鑿 은 郭店簡《老子甲》에 이 글자가 보이며, 현본《老子》에는 ‘銳’라고 되어 있다. 이것은 ‘墜’의 통가로, 《廣雅·釋詁三》에 “墜는 잃다(失)의 뜻”이라고 했다.

[11] 考는 자세히 생각하고 고찰하다, 성찰하다의 뜻으로 풀이된다.

[12] 整理者(2012): 愜는 滔의 통가로, 《說文》에 “기쁘다(說)의 뜻”이라고 했다.

[13] 市는 斯의 통가로, 문말 어기사로 쓰였다. 고대에는 師와 斯가 통용되었는데, 《左傳·文公十一年》에 보이는 “獲長狄緣師。(長狄緣師를 사로잡았다)”라는 문장 속의 ‘師’는 《史記·魯周公世家》에서는 ‘斯’로 쓰이고 있다.

[14] 型은 ‘刑’의 통가로, 되다, 형성하다의 뜻으로 풀이된다. 《周易·蒙》에 “利用刑人。(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는데 유익하다)”라는 문장의 焦循<章句>에서 “刑은 되다, 형성하다의 뜻”이라고 했다.

【번역】

주공이 백관대신들에게 훈계하는 내용의 시를 지어, 琴舞(음악과 춤과 노래가 결합된 악무) 아홉 장을 연주하였다.

(연주에 들어가는) 제 1장 啓: “천자를 받들어 모시는데 오로지 마음에 드는 말만 해서 천자의 환심을 사려고만 하지 말지어니, 천자가 본분을 잊지 않도록

잘 감독하고 살필지이다. 그대들이 천자의 환심을 사려고만 하면 천자는 쾌락에 빠져버리게 되나니, 부단히 천자를 성찰하고 감독하여 만백성의 모범이 되게 하라.”

【간문2】

城(成)王作敬(敬)怵(恚)琴舞九紘(遂)。

元內(入)啓曰：“敬=之= (敬之敬之) [1], 天佳(惟) 燾(顯) [2] 市(斯), 文[3]非易市(斯)。母(毋)曰高=(高高)才(在)上, 劼(陟) [4]降元(其)事[5], 卑[6]藍(監)才(在)茲。”

亂曰：“訖[7]我箇(夙)夜, 不寃(逸) [8]敬之。日蹴(就) [9]月將[10], 孝(教) [11]元(其)光明。彌(彌) [12]寺(持) [13]元(其)又(有)肩[14], 貺(示) [15]告余燾(顯) 惠(德) [16]之行。”

【주석】

[1] 季旭昇(2013a): 이 구절에서 ‘敬’은 공경(恭敬)의 뜻으로 풀이해도 되며, ‘之’는 대명사로 볼 수 있다. ‘天’의 대명사로 보아도 되고 또 虛詞로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아도 된다.

[2] 整理者(2012): 燾은 현본 《詩經》에는 ‘顯’으로 되어 있으며, 鄭<箋>에 “顯은 빛나다(光)의 뜻”이라고 했다.

[3] 文은 꾸미다, 덮어 숨기다, 가리다의 뜻이다. 《論語·子張》에서 “小人之過也必文。(소인은 과오를 범하면 반드시 까닭을 꾸며 대려고 한다.)”고 했다.

[4] 整理者(2012): 劼의 성부는 力이며, ‘陟(오르다)’의 통가다.

[5] 季旭昇(2013a): 事는 使로 사용되었으며, 上天의 使者를 말한다.

[6] 季旭昇(2013a): 卑는 ‘俾’의 통가로, ~하도록 하다(使)의 뜻이다.

[7] 訖은 마치다(終)의 뜻이다. 《尚書·呂刑》에 “惟訖于富。(최종적으로 그들을 잘 살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니)”라는 구절이 있는데, 王引之《經義

述聞》에서 “訟은 마침내(竟), 마치다(終)의 뜻”이라고 했다. 甲骨文에서는 虛詞 ‘气’로 쓰인다. 沈培(2013)는 ‘최종적으로, 결국에’의 의미라고 했다.

[8] 逸은 안일(安逸)의 뜻이다.

[9] 就는 이루게 하다는 뜻이다.

[10] 將은 도와주다는 뜻이다.

[11] 孝는 教이며, 교육하다, 가르쳐 이끌다는 뜻이다.

[12] 整理者(2012): 弼은 바로잡다, 보좌하다는 뜻이다.

[13] 整理者(2012): 寺는 ‘持’의 통가로, 보살피다, 보호하다는 뜻이다.

[14] 整理者(2012)는 又肩은 有肩이며, 담당하여 맡은 바가 있다를 의미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有肩’은 중책을 맡은 成王을 가리킨다.

[15] 整理者(2012): ‘ 黜 ’는 ‘視’字이며, ‘示’의 통가로, 가르쳐 이끌다는 뜻이다.

[16] 整理者(2012): 顯德은 밝게 드러나는 덕을 말한다.

【번역】

성왕이 스스로를 경계하는 내용의 시를 지어, 琴舞(음악과 춤과 노래가 결합된 악무) 아홉 장을 연주하였다.

제1장 啓: “공경하고 공경하라! 하늘은 영명하고 밝으시니, 잘못과 과오를 가리고 꾸미는 것은 쉽지 않다네. 하늘이 저 높은 곳에 있어 모른다고 말하지 말지어니, 하늘은 사자를 파견하여 천지 사이를 위 아래로 왔다 갔다 하게 하여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감독하게 한다네.”

제1장 亂: “나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한시도 게을리 하지 않으며 하늘을 공경하고 또 두려워한다네. 해와 달이 모두 내게 다가와 나를 도와, 그들의 광명을 가르쳐 준다네. 해와 달이 막중한 책무를 짊어진 나를 도와주고, 밝게 드러나는 현명한 덕의 길로 인도한다네.”

【간문3】

通(踵) [1]啓曰：“段(假)才(哉)古之人[2]，夫(慮)明思慎[3]，甬(用) [4] 鞅(仇) [5] 元(其) 又(有) 辟[6]，允[7]不(丕) 承不(丕) 焯(顯)，思[8] 倮(攸) [9] 亡罍(殲) [10]。”

亂曰：“已[11]，不曹(造) [12]哉！思[13]型[14]之[15]，思毘[16]彊[17]之，甬(用) 求元(其) 定[18]， 褻(欲) [19]皮(彼) [20] 趨(熙) [21]不茗(落) [22]，思 逝(遜) 。[23]”

【주석】

[1] 網友苦行僧(簡帛論壇2013): ‘通’은 간혹 ‘踵’으로 통가되는데, 잇다(繼)로 풀이되며, ‘다시(再)’의 의미와 통한다.

[2] 整理者(2012): 段才是 ‘假哉’의 통가다. ‘假哉古之人’과 <周頌·雝>의 ‘假哉皇考(홀륭하시도다, 돌아가신 아버님이시어!)’는 문장 형식이 동일하다. <毛傳>에 “假는 홀륭한(嘉)의 뜻”이라고 했다. 또 <<爾雅·釋詁>>에도 보인다. ‘古之人’은 돌아가신 조부와 부친을 말한다.

[3] 夫는 ‘慮’의 통가다. <<說文>>에 “慮는 이리저리 모색하여 생각하다의 뜻”이라고 했다. ‘慮’와 ‘思’는 의미가 비슷하며, 신중하게 모색하고 분명하게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4] 整理者(2012): 甬은 ‘用’의 통가로, ~로써(以)의 뜻이다.

[5] 整理者(2012): 鞅은 ‘仇’의 통가로, 짝이 되다의 뜻이며, 여기서는 어울려 짝이 되게 하다로 풀이된다.

[6] 整理者(2012): 又辟는 ‘有辟’의 통가로, 辟는 <<爾雅·釋詁>>에 “왕(君)의 뜻”이라고 했다.

[7] 允은 문두 어기사로 쓰였으며, 감탄을 나타낸다.

[8] 思는 여기서 ~로 하여금 ~하게 하다(使)의 뜻으로 쓰였다.

[9] 攸는 조사로, 의미가 없다.

[10] 罍은 ‘殲’의 통가로, <<說文>>에 “殲은 패하다(敗)의 뜻”이라고 했다.

[11] 整理者(2012): 已는 어기사(감탄을 나타냄)다.

[12] 曹는 ‘造’의 통가로, 不造는 이르지 못하다, 이를 수 없다는 뜻이다.

[13] 思는 여기서 ~하기를 바라다, 희망하다는 뜻으로 쓰였다.

[14] 型은 본받다의 뜻이다.

[15] 之는 ‘古之人’, 즉 선조를 가리킨다.

[16] 黃傑(2013b): 旤는 ‘勛’의 통가로, 《說文》에 “勛은 노력하다, 힘쓰다의 뜻”이라고 했다.

[17] 整理者(2012): 彊은 《周禮·地官·司諫》에 “掌糾萬民之德而勸之朋友, 正其行而強之道藝。(모든 백성의 덕을 살피고 벗끼리 권장하게 하여 행실을 바르게 하며, 도예를 권장하는 일을 관장한다)”라는 문장이 있는데, 鄭玄 <注>에 “強은 격려하다와 같은 뜻”이라고 했다.

[18] 整理者(2012): 定은 안정되다, 평정되다의 뜻이다. <周頌·賚>에 “敷時繹思, 我徂維求定(문왕의 큰 덕을 널리 펴서 세상을 안정시키리라)”라는 문장이 있는데, 鄭<箋>에 “以此求定은 천하를 안정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했다.

[19] 整理者(2012): ‘褻’은 곧 ‘裕’이며, ‘欲’의 통가로, 희망하다는 뜻이다.

[20] 整理者(2012): 皮는 ‘彼’의 통가로 저, 그의 뜻이다.

[21] 趨는 ‘熙’ 또는 ‘起’로 풀이해도 되며, 흥성하다는 뜻이다.

[22] 整理者(2012): 落은 떨어지다, 죽다의 뜻이다.

[23] 逝은 從辵愼聲으로 구성된 글자로, ‘遵’ 혹은 ‘循’의 통가이며, 순조롭다의 뜻이다.

【번역】

제2장 啓: “훌륭하도다, 선현들이여! 사려 깊고 신중하게 그들의 천자를 잘 보필하였네. 그리하여 천자가 하늘의 뜻을 잘 받들도록 하였으며, 천자가 잘못 된 일을 하지 않도록 하였다네.”

제2장 亂: “아아! 우리는 선조들처럼 그런 경지에 이를 수는 없지만, 선조들을 본받아 그들처럼 되도록 노력하고, 천자가 안정을 찾기를 갈구하며, 그가 성대해져 쇠락하지 않도록 바란다네. 그가 겸허하고 공손해지기를 바란다네.”

【간문4】

參 (三) 啓曰: “惠 (德) 元[1] 佳 (惟) 可 (何) ? 曰淵 (淵) [2] 亦印 (抑) [3], 厰 (嚴) [4] 余不解 (懈) [5], 黉 (業) 黉 (業) [6] 畏載 (忌) [7], 不易畏 (威) 義 (儀) [8]. 才 (茲) [9] 言, 佳 (惟) 克[10] 敬之!”

亂曰: “非天唵 (禁) [11] 惠 (德), 毆 (繫) [12] 莫肯 (肯) 曹 (造) [13] 之, 夙 (夙) 夜不解 (懈), 惹 (懋) [14] 專 (敷) [15] 元 (其) 又 (有) 歛[16], 褻 (欲) 元 (其) 文人[17], 不逸[18] 藍 (監) [19] 余.”

【주석】

[1] 整理者(2012): 德元은 덕의 근원이라는 뜻이다. <書·召誥>에 “其惟王位在德元(그 임금인 자가 덕의 근원인 곳에 있으면)”이라는 구절에 보이는데, 孔<傳>에 이를 “其惟王居位在德之首。(임금이 덕을 으뜸으로 하는 곳에 거하면)”이라고 풀이했다.

[2] 整理者(2012): 淵 은 곧 ‘淵’이며, 깊숙하고 그윽하다, 심오하다, 깊이 가라앉다의 뜻이다.

[3] 整理者(2012): 印은 ‘抑’의 통가로, 아름답다의 뜻이다.

[4] 整理者(2012): 厰은 <說文>에 ‘厰’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簡文에서는 ‘嚴’의 통가로, 공경하다, 두려워하다의 뜻이다. 혹은 ‘儼’으로도 쓴다.

[5] 整理者(2012): 不解는 곧 ‘不懈’이며, 태만하지 않다는 뜻이다.

[6] 整理者(2012): 黉 黉 은 곧 ‘業業’이다. <大雅·雲漢>에 “兢兢業業, 如霆如雷(두렵고 불안해서 천둥이 울리고 벼락이 치는 것 같네)”라는 구

절이 있는데, <毛傳>에 “兢兢은 두려워하디의 뜻이며, 業業은 위태롭다의 뜻”이라고 했다.

[7] 整理者(2012): 畏載는 ‘畏忌’의 통가로, 근신하디의 뜻이다.

[8] 整理者(2012): 畏義는 ‘威儀’의 통가로, 위엄 있는 용모와 장엄한 자세로 풀이된다. <大雅·抑>에 “敬爾威儀。(그대의 위엄 있는 용모와 장엄한 자세를 공경하여)”라는 구절이 있다.

[9] 才是 ‘茲’의 통가로, 이것의 뜻이다.

[10] 克은 <詩·齊風·南山>에 “析薪如之何? 匪斧不克。(장작을 패려면 어떻게 하지? 도끼가 없으면 능히 할 수가 없네)”라는 구절이 있는데, <毛傳>에 “克는 능하디의 뜻”이라고 했다.

[11] 隄은 ‘噤’의 이체자이며, ‘禁’의 통가로, 금지하디의 뜻이다.

[12] 毘는 ‘繫’의 통가로, 오로지디의 뜻이다. <左傳·襄公十四年>에 “王室之不壞, 鬻伯舅是賴。(왕실이 무너지지 않은 것은 오로지 伯舅의 덕분이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孔穎達<疏>에 이를 “王室之不傾壞者, 唯伯舅大公是賴也。(그리하여 주나라 왕실이 무너지지 않은 것은 완전히 伯舅大公 덕택이다)”라고 풀이했다.

[13] 曹는 ‘造’의 통가로, 이르디, 구해서 얻디의 뜻이다.

[14] 整理者(2012): 惹는 ‘懋’로, 힘쓰디의 뜻이다.

[15] 整理者(2012)는 專가 ‘敷’의 통가라고 했는데, 여기서 敷는 시행하디의 뜻으로 쓰였다.

[16] 整理者(2012): 攸는 ‘奪’의 古字로, 앞다투어 쟁취하디의 뜻이다. <荀子·王制>에 “王奪之人, 霸奪之與, 彊奪之地。(王者는 어진 사람을 빼앗고, 霸者는 함께 하는 나라를 빼앗고, 彊者는 땅을 빼앗는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楊倞<注>에 “人은 賢人을 말하며, 與는 함께 하는 나라(與國)를 말한다. 彊國之術은 남의 땅을 빼앗는 것이다”라고 했다.

[17] 整理者(2012): 文人은 선조 가운데 문덕(文德)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18] 不逸은 쉬지 않고, 줄곧, 끊임없이의 뜻이다.

[19] 整理者(2012): 監은 살피다, 감찰하다의 뜻이다.

【번역】

제3장 啓: “천하에서 가장 으뜸인 천자의 덕은 어떠해야 하는가? 심오하고 또 아름다워야 하느니. 공경하고 두려워하며, 조금도 태만하지 않아야 한다네. 조심하고 근신하며, 장엄한 용모와 자태를 바꾸지 않고 변함없이 유지해야 한다네. 나는 이 말을 기억하고 잘 따를 뿐이라네.”

제3장 亂: “하늘이 인간 세상에 덕을 내려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을 뿐이라네. 나는 조금도 방만하지 않고 밤낮으로 노력하여 하늘이 인간 세상에 내려주신 덕을 앞다투어 얻고자 하니, 문덕이 있는 선조들이 부단히 나를 감독하고 보살펴주시기를 바란다네.”

【간문5】

四啓曰: “文 = (文文) [1] 元 (其) 又 (有) 家, 岳 (保) 藍 (監) [2] 元 (其) 又 (有) 後[3]。需 (孺) 子王矣[4], 不窳 (寧) [5] 元 (其) 又 (有) 心。 李 李 (理理) [6] 元 (其) 才 (在) 立 (位), 焜 (顯) 于上下 [7]。”

亂曰: “ 號 (通) [8] 元 (其) 焜 (顯) [9] 思[10], 皇天之 衽 (攻) [11], 晝之才 (在) 見 (視) 日, 夜之才 (在) 見 (視) 晨 (辰)。日內 (入) [12] 鼻 鬻 (舉) [13] 不窳 (寧), 是佳 (惟) 尾 (度) [14]。”

【주석】

[1] 整理者(2012): 文文은 《禮記·樂記》에 “禮減而進, 以進爲文; 樂盈而反, 以反爲文(예의는 교만한 마음을 없애고 나아감으로써 아름다움이 되게 하고, 음악은情意가 충만한 것을 표현하되 억제함으로써 아름다움이 되게 하는 것이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鄭<注>에 “文은 아름다다와 같다. 선하다의 뜻”이라고 했다.

[2] 整理者(2012): 缶藍는 ‘保監’의 통가로, 보살피고 감독하다는 뜻이다.

[3] 整理者(2012): 又是 ‘有’의 통가로, 접두사다. 有後는 후사(後嗣), 후손을 말한다.

[4] 李學勤(2014): ‘孺子王矣’는 《書·立政》과 동일한 문구로, 이는 주공의 말투다.

[5] 不寧은 편안하지 못하다, 안정되지 못하다는 뜻이다.

[6] 李 은 楚文字에서 대부분 ‘理’의 통가로 사용되었으며, 理理는 또렷하고 분명하다는 뜻이다.

[7] 整理者(2012): 上下는 천신(天神)과 인간(人間)을 가리킨다.

[8] 整理者(2012): 𠄎 은 ‘適’ 또는 ‘聿’의 통가로, 문두 어기사다.

[9] 整理者(2012): 顯은 밝다는 뜻이다.

[10] 整理者(2012): 思는 문말 어기사로 쓰였다.

[11] 疢 은 ‘攻’의 통가로, 치료하다, 다스리다는 뜻이다. 《周禮·天官·瘍醫》에 “凡療瘍，以五毒攻之。(무릇 상처를 치료하는 데는 5가지 독으로 다스리고)”라는 구절이 있는데, 鄭玄<注>에 “攻은 치료하다, 다스리다는 뜻”이라고 했다.

[12] 內는 ‘入’ 또는 ‘納’의 통가로, 받아들이다는 뜻이다.

[13] 整理者(2012): 𠄎 은 ‘擧’의 통가다. 《呂氏春秋·自知》에 “所以擧過也(자신의 과오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이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高誘<注>에 “擧는 바르게 하다는 뜻이다”고 했다.

[14] 整理者(2012): 𠄎 은 從尸毛聲으로 이루어진 글자이며, ‘度’로 통가되어 ‘법도’의 뜻으로 쓰였다.

【번역】

제4장 啓: “문덕이 있는 가족은 그 후손들을 보호하고 감독하는데, 어린 천자가 즉위하여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하기 그지없다네. 천자의 자리는 분명하게 드러나는 법, 백성과 하늘이 아래 위에서 모두 지켜보고 있다네.”

제4장 亂: “(천자의) 그 불안한 마음 분명하게 드러났으니, 크고 넓은 하늘이 그를 다스리시어. 그가 낮에는 해를 본받고 밤에는 별을 본받아, 매일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불안한 그 마음을 고쳐 바로잡는다면, 이것이 곧 올바른 법도일지니.”

【간문6】

五啓曰: “於(鳴)呼! 天多降惠(德), 汭 = (滂滂) [1] 才(在)下, 流 [2] 自求歛 [3], 者(諸) [4] 爾多子 [5], 达(逐) [6] 思 [7] 濳(沈) [8] 之.”

亂曰: “佥(宣) [9] 稱(稱) [10] 元(其) 又(有) 若 [11], 曰官(享) [12] 倉(答) [13] 余一人 [14], 思 [15] 輔余于勤(艱) [16], 迺(乃) 是 [17] 佳(惟) 民, 亦思 [18] 不忘 [19].”

【주석】

[1] 整理者(2012): 汭汭은 ‘滂滂’의 통가로, 《廣雅·釋訓》에 “滂滂은 흐르다의 뜻”이라고 했다. 파생되어 넓다의 뜻이 되었다.

[2] 流는 물이 흘러 사방으로 퍼지는 것을 뜻한다.

[3] 歛은 ‘奪’의 古字로, 다투어 취득하다, 다투어 쟁취하다의 뜻이다.

[4] 整理者(2012): 者는 ‘諸’의 통가로, 吳昌瑩《經詞衍釋》에 “모두, 다와 같은 뜻”이라고 했다.

[5] 整理者(2012): 多子는 《書·洛誥》에 “子旦以多子越禦事, 篤前人成烈, (나 단(旦)은 여러 경대부(卿大夫)와 어사(御事)들과 함께 전인(前人)께서 이룩하신 일들을 계승하여)”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孔穎達《疏》에 “자(子)는 덕이 있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대부(大夫)를 모두 자(子)라고 불렀으며, 그래서 多子는 여러 경대부(卿大夫)를 말한다.”고 했다.

[6] 整理者는 达가 ‘逐’의 이체(異體)자라고 했는데, 逐은 《玉篇·辵部》에서 “겨루다의 뜻”이라고 했다.

[7] 整理者(2012): 思는 ~하기를 바라다의 뜻으로 쓰였다.

[8] 整理者(2012): 沈은 빠지다의 뜻이다.

[9] 恒은 ‘宣’의 통가로, 《爾雅·釋言》에 “宣은 두루 미치다의 뜻”이라고 했다.

[10] 整理者(2012): 稱은 ‘稱’의 통가로, 천거하여 쓰다의 뜻이다.

[11] 整理者(2012): 若은 순하다, 선하다로 풀이된다.

[12] 整理者(2012): 享은 바치다, 올리다의 뜻이다.

[13] 整理者(2012)는 습이 답이라고 했는데, 답은 보답하다의 뜻이다.

[14] 整理者(2012): 余一人은 君王의 自稱이다.

[15] 思는 여기서 ~하게 하다의 뜻으로 쓰였다.

[16] 整理者(2012): 勤은 ‘艱’의 통가다.

[17] 是는 여기서 지시대명사 이(此, 這)의 뜻으로 쓰였다.

[18] 思는 여기서 그리워하다의 뜻으로 쓰였다.

[19] 忘은 여기서 잊어버리다의 뜻으로 쓰였다.

【번역】

제5장 啓: “오호! 하늘이 많은 덕을 내려주셔서, 물이 팔팔 넘쳐흐르듯 널리 인간 세상에 넘쳐나네. 사람들이 그것을 앞다투어 얻어야 하거늘, 그대들 여러 경대부들도 모두 앞다투어 그 덕의 물결 속에 들어가기를 바라다네.”

제5장 胤: “선한 덕이 있는 자를 두루 발굴하여 나에게 추천하고, 그들로 하여금 어려움에 처한 나를 돕도록 할지니, 그리하면 만백성들도 그대들을 잊지 않으리.”

【간문7】

六啓曰：“元(其) [1] 余 濶(沖) 人[2], 備(服) [3] 才(在) 清(廟) [4], 佳(惟) 克(小) 心, 命[5] 不彝(夷) [6] 箒(滅) [7], 寔[8] 天之不易[9]。”

亂曰：“彌(弗) [10] 敢荒(荒) [11] 才(在) 立(位), 奠(恭) 畏[12] 才(在) 上[13], 敬顯(顯) [14] 才(在) 下[15]。於乎! 弋(式) [16] 克[17] 元(其) 又(有) 辟, 甬(用) 頌(容) [18] 聿(緝) [19] 余, 甬(用) 少(小) 心寺(侍) [20], 佳(惟) 文人之若[21]。”

【주석】

[1] 整理者(2012): 其는 문두 여기서다.

[2] 整理者(2012): 余 濶 人은 곧 《書》의 ‘予沖人(어린 사람)’인데, <盤庚>, <金縢>, <大誥> 등에 나온다. <盤庚下>의 孔<傳>에 “沖은 아동(童)의 뜻”이라고 했다. 孔穎達<疏>에 “沖과 童은 발음이 비슷하며 모두 어린아이를 이르는 말이다. 스스로 어린아이라고 칭하는 것은 자신이 철이 없고 무지함을 겸손하게 이르는 말이다”라고 했다.

[3] 整理者(2012): 備는 ‘服’의 통가로, 종사하다(事)로 풀이된다.

[4] 청묘는 선조들의 제사를 모시는 사당으로 종묘사직을 대표한다. 整理者(2012)는 淸廟는 <周頌·淸廟>의 小序 鄭<箋>에 “淸廟者, 祭有淸明之德者之宮也, 謂祭文王也。(淸廟라는 것은 맑고 밝은 덕을 기리기 위해 제사를 지내는 사당이다. 즉 문왕께 제사를 지내는 곳이다)”라는 구절이 있다고 했다.

[5] 命은 《說文》에 “命은 ~하도록 하다는 뜻”이라고 했다.

[6] 인터넷 논객 無語先生(2013)의 해석에 근거하여 黃傑(2013b)은 ‘彘’는 ‘夷’의 통가라고 했다. ‘夷’는 ‘평평하게 하다’로 풀이해야 한다. 《說文》에 “夷는 평평하게 하다는 뜻”이라고 했다.

[7] 箒은 ‘滅’의 통가로, 멸하다는 뜻이다.

[8] 寔는 ~에 상당하게, ~에 대등하게, ~와 같이의 뜻이다. 《禮記·聘義》에 “介紹而傳命, 君子於其所尊弗敢質, 敬之至也。(전달자가 되어 명을 전할 때 군자는 감히 (명을 내리는) 높은 사람에게 대등하게 하지 못한다. 이는 공경함이 지극한 것이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鄭玄<注>에 “質은 ~에 상당하게를 말한다.”고 했다.

[9] 不易은 변하지 않음을 뜻한다.

[10] 整理者(2012): 弼은 '弗'의 통가로, 弼敢은 감히 ~하지 못하다는 뜻이다.

[11] 荒은 게으르다의 뜻이다. 《詩經·齊風·還·序》에 “還, 刺荒也。(還은 게으름을 풍자하는 것이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鄭玄<注>에 “荒은 政事가 황폐해지고 어지러움을 뜻한다”라고 했다.

[12] 恭畏는 공경하며 두려워하다의 뜻이다.

[13] 在上은 상천(上天)과 조상신령을 말한다.

[14] 敬顯은 소중히 존중하고 드러내다의 뜻이다.

[15] 在下는 아래의 신하와 백성을 말한다.

[16] 式은 문두 어기사로 쓰였으며, 희망을 나타낸다.

[17] 克은 '核'의 통가로, 심사하다의 뜻이다. 《尚書·呂刑》에 “其罪惟均, 其審克之。(그 죄는 고르게 다스려야만 하는 것이니 잘 살피어 심사하도록 하오)”라는 구절이 있는데, 《漢書·刑法志》에서 “其審核之”라고 인용하였다. 《管子·七臣七主》에 “數出重法, 而不克其罪, 則姦不爲止。(군주가 자주 무거운 법을 반포하여도 죄를 저지르는 것을 심사할 수 없으면, 간사한 행동이 그치지 않는다)”는 구절이 있는데, 王念孫《讀書雜誌·管子九》에서 “克은 核의 통가로, 不克其罪는 그 죄의 허와 실을 심사하지 못함을 뜻한다”고 했다.

[18] 頌은 '容'의 통가로, 용모를 치장하다, 꾸미다의 뜻이다.

[19] 聿은 '緝'의 통가로, 다스리다, 가꾸다의 뜻이다.

[20] 寺는 '侍'의 통가로, 연장자(尊長)나 주인(主人)을 따르다, 혹은 모시다의 뜻이다. 《左傳·襄公十四年》에 “師曠侍於晉侯。(진나라의 악사 사광이 진후를 모셨다)”는 구절이 있다.

[21] 整理者(2012): 若은 따르다의 뜻으로 풀이된다.

【번역】

www.kci.go.kr

제6장 잠: “나는 어리고 어린 나이에 보위를 이어받아 선왕의 종묘에서 제사

를 받들게 되었네. 오로지 조심하고 근신할 따름이네. 종묘가 멀해지지 않도록. 하늘과 같이 영원하도록.”

제6장 亂: “천자의 자리에 있는 나는 감히 태만하지 않아야 하네. 위로는 하늘과 선조신령들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며, 아래로는 신하와 백성을 존중하고 우수한 인재를 소중히 여기며 그들의 재능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네. 오호! 바라건대 그대들은 천자인 나를 잘 감시, 감독하여, 나의 부족함은 보완하고 과오는 고쳐 선왕의 종묘를 받들어 모시게끔 할 것이며, 그대들의 현명한 선조들을 따를지이다.”

【간문8】

七啓曰: “思[1] 又(有) 息[2], 思憲[3] 才(在) 上[4], 不(丕) 顯(顯) 元(其) 又(有) 立(位) [5], 右(佑) [6] 帝才(在) 落(落) [7], 不 達(失) [8] 佳(惟) 同[9].”

亂曰: “佗(訖) [10] 余葬(恭) [11] 害(曷) [12] 紂(台) [13], 攷(孝) 敬[14] 肥(非) [15] 紂(怠) 荒(荒)。秋(咨) [16] 爾多子, 竺(篤) [17] 元(其) 親(繭) [18] 邵(紹) [19], 余 彖(遂) [20] 思念[21], 畏天之載[22], 勿請[23] 福之侃(愆) [24].”

【주석】

[1] 思는 여기서 ~하기를 희망하다는 뜻으로 쓰였다.

[2] 整理者(2012): 息은 《廣雅·釋詁一》에 “편안하다는 뜻”이라고 했다.

[3] 整理者(2012): 憲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다는 뜻이다.

[4] 整理者(2012): 思憲在上은 金文에 자주 등장하는 “喜侃前文人(자신의 선조들을 즐겁게 하다)”의 뜻과 유사하다.

[5] 整理者(2012): 有位는 자신들의 선조들이 황제 옆 자리가 아닐까 싶다는 뜻이다.

[6] 右는 ‘佑’의 통가로, 돕다는 뜻이다. 《尚書·周官》에 “敬爾有官, 亂爾有

政，以佑乃辟。(그대들의 벼슬을 공경하고 그대들의 정사를 잘 다스려 그대들의 임금을 도우며)"라는 구절이 있는데, 孔<傳>에 이를 "言當敬治官政，以助汝君長。(마땅히 자신의 말은바 직무를 잘하여 너의 군주를 돕는 것을 말한다)"고 풀이했다.

[7] 答은 곧 '落'자로, 거처의 뜻이다. 劉向《列女傳·楚老萊妻》에 "老萊子乃隨其妻而居之，民從而家者，一年成落，三年成聚。(노래자라는 현인이 그곳에 그 처를 데리고 와서 거주하였는데, 백성들이 그를 좇아와 살게 되었다. 일년 뒤에는 촌락(落)을 이루었고, 삼년 뒤에는 취락(聚)을 이루었다.)"는 구절이 있다. 佑帝在落은 金文과 다른 典籍에서 '在帝所(상제가 거처하는 곳에)', '在帝左右(상제의 곁에)'라고 하는 표현과 동일하다.

[8] 達은 '失'의 통가로, 잃다의 뜻이다.

[9] 同은 동반하여, ~와 함께의 뜻이다. 《詩經·邶風·七月》에 "同我婦子，饁彼南畝，田峻至喜。(아내와 아이들이 함께 저 남쪽 밭으로 밥 가져오면 권농관이 기뻐한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鄭玄<箋>에 "同은 함께, 모두의 뜻"이라고 했다.

[10] 訖은 줄곧, 계속해서의 뜻이다.

[11] 整理者(2012): 奠은 '恭'의 통가다.

[12] 蘇建洲(2013): 寤은 曷(어찌)의 통가다. 《說文》에 "曷은 何(어찌)의 뜻"이라고 했다.

[13] ee(單育辰), 簡帛論壇(2013): 夔는 '以(혹은 台, 혹은 似)'(~로써)의 통가다.

[14] 整理者(2012): 攷敬은 '孝敬'의 통가다. 《左傳·文公十八年》에 "孝敬忠信爲吉德。(孝敬과 忠信은 吉德이옴고)"라는 구절이 있다.

[15] 整理者(2012): 肥는 '非'의 통가로, 고대에 '肥'와 '非'는 통했다.

[16] 整理者(2012): 欸는 '欸'의 통가다. 《書·堯典》에 "帝曰：咨，汝羲暨和("아, 그대들 희씨와 화씨여!")라고 요임금이 말했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孔<傳>에 "欸는 (탄식하는 소리) 아아!"라고 했다.

[17] 整理者(2012): 笏은 '篤'의 통가다. 《爾雅·釋詁》에 “한결같이, 진심으로의 뜻”이라고 했다.

[18] 親은 '繭'字로, 簡의 통가다. 속박하다, 제약하다의 뜻으로 쓰였다. 《逸周書·諡法》에 “壹德不解曰簡, 平易不疵曰簡”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朱佑曾《集訓校釋》에 “簡은 속박하다(約)의 뜻”이라고 했다. 整理者는 卨를 '劬'의 통가라고 추정했는데, 《說文》에 “힘쓰다(勉)의 뜻”이라고 했다.

[19] 卨는 '紹'의 통가로 보이며, 《說文》에 “이어가다의 뜻”이라고 했다. 親紹는 계승하다의 뜻이다. 陳侯因 脊 敦에 “卨練先祖黃帝。(선조 황제를 계승하여 이어가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親紹와 '卨(紹) 練은 같은 단어이다.

[20] 整理者(2012): 彙 은 甲骨文에 보이는 글자로 저녁의 어느 시간대를 가리키며, '遂'의 통가로 생각된다. 《廣韻》에 “신중하다의 뜻”이라고 했다.

[21] 整理者(2012): 思念은 추념하다, 회상하다의 뜻이다. 《國語·楚語下》에 “吾聞君子唯獨居思念前世之崇替者, 與哀殯喪, 於是有歎, 其餘則否。(제가 듣건대, 군자는 오로지 홀로 있으며 전대의 흥망성쇠를 생각하거나, 빈상에서 슬퍼할 때만 탄식을 할 뿐 다른 때는 탄식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라는 구절이 있다.

[22] 整理者(2012): 畏天之載는 <大雅·文王>에 “上天之載, 無聲無臭(하늘이 하시는 일은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네)”라는 구절이 있는데, <毛傳>에 “載는 일(事)의 뜻”이라고 했다.

[23] 整理者(2012): 請은 《廣雅·釋言》에 “구하다, 청하다의 뜻”이라고 했다.

[24] 整理者(2012): 侃은 '愆'의 통가다. 愆은 상실하다, 잃어버리다의 뜻이다.

【번역】

제7장 啓: “하늘에 계신 선조들이 안정되기를 바라옵고, 기쁘고 즐거우시기를 바라오며, 하늘에서 선조들의 자리가 혁혁하게 빛나고 드러나기를 바라옵

고, 상제의 옆자리에서 상제를 도와 신임을 잃지 않고 영원히 상제와 함께 하 시기를 바라옵니다.”

제7장 亂: “나는 어떻게 선조들을 공경해야 하는가? 효성과 공경, 그리고 방만하지 않음과 방종하지 않음이라네. 아아, 그대들 백관 대신들이여! 확실 하게 스스로를 속박하고 통제하도록 힘써 노력할지어다. 나도 신중히 선조들 을 추념하며, 하늘의 일을 경외할지니, 하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복을 잃어서 는 안 된다네.”

【간문9】

八啓曰: “差(佐) 寺(侍) [1] 王聰(聰) 明[2], 元(其) 又(有) 心不易 [3], 畏(威) 義(儀) 謚= (謚謚) [4], 大元(其) 又(有) 慕[5], 介(句) 畢(澤) [6] 寺(侍) [7] 惠(德), 不畀[8] 甬(用) 非頌(容) [9].”

亂曰: “良惠(德) 元(其) 女(如) 紉(台) [10]? 曰旨(享) 人大……[11] 罔克甬(用) 之[12], 是 顛(墜) 于若[13].”

【주석】

[1] 整理者(2012)는 差寺는 ‘佐事’의 통가로, 돕다의 뜻이라고 했는데, 寺는 또 ‘侍’로도 통가될 수도 있으며, 모시다의 뜻이다.

[2] 整理者(2012): 聰明은 사리를 명백히 살피다를 말한다. 《荀子·王霸》에 “聰明君子者, 善服人者也. (사리를 명백히 살피는 총명한 군자는 모든 사람들을 잘 복종시키는 자이다)”라는 구절이 있다.

[3] 不易은 바꾸지 않는다는 뜻이다.

[4] 黃恬恬(2013): ‘謚’은 ‘諱’의 통가로, 畏(威) 義(儀) 謚謚(藹藹) 는 곧 왕과 신하의 용모와 자태가 엄정함을 형용하는 말이다.

[5] 慕는 우러러 사모하다는 뜻이다. 《尚書·畢命》에 “弗率訓典, 殊厥井疆, 俾克畏慕. (교훈과 법을 잘 따르지 않거든 井田의 경계를 달리하여 두려워 따르도록 하십시오)”라고 했다.

[6] 整理者(2012): 介는 '匂'의 통가로, 간절히 바라다의 뜻이다. <爾風·七月>에 “爲此春酒, 以介眉壽(봄 술 담아 잔 올리며 노인들 장수를 비네)”라는 구절이 있는데, 林義光《詩經通解》에서 '介'를 '匂'의 통가로 보았다. 暎은 '澤'의 통가로 추정되는데, 《書·多士》에 “殷王亦罔敢失帝, 罔不配天其澤。(은 나라 임금도 감히 하늘의 뜻을 잃지 않아, 모두가 하늘의 뜻에 부합하게 되어 그 은택을 입지 않은 것이 없게 되었던 것이오)”라고 했다.

[7] 整理者(2012): 寺는 '恃'의 통가로, 의뢰하다, 의지하다의 뜻이다.

[8] 整理者(2012): 畀는 하사하다, 내려주다의 뜻이다.

[9] 黃傑(2013): '頌'은 '容'의 통가로 보이는데, 이는 楚簡의 일반적인 용법이다. '容'은 용모, 자태를 가리킨다.

[10] 整理者(2012): 女 夔 은 '如台'의 통가로, 《商書》와 《史記》에 많이 보이며 '어찌하다'의 뜻으로 풀이된다.

[11] 整理者(2012): 簡文은 이곳에서 약 14~15자가 결여되어있다.

[12] 整理者(2012)는 甬이 '用'의 통가라고 했는데, '罔克用之'는 그것을 쓸 수 없다는 뜻이다. 李守奎(2013)는 '之'가 어진 덕을 가리킨다고 주장했다.

[13] 整理者(2012): 畀은 선하다로 풀이된다.

【번역】

제8장 啓: “그대들이 모시는 천자가 총명하여 사리를 명백히 살피면, 모시는 신하들의 마음은 감히 태만하고 방종하지 못할지니. 천자의 용모와 자태가 엄숙하고 장중하면, 신하들의 우러르고 존경하는 마음은 점점 더 커지게 될 지니. 하늘의 은덕을 갈구하는 것은 오로지 덕행에 의해서만 할 수 있으니. 하늘은 용모와 자태에 위엄이 없는 이에게는 은택을 내려주지 않는다네.”

제8장 亂: “어진 德은 어떤 것인가? 대답하기를 ……그것을 쓸 수 없다면 善을 잃게 된다네.”

【간문10】

九啓曰：“於乎！彌（弗）敢〔1〕荒（荒）〔2〕惠=（德，德）非 隳（惰）〔3〕市（斯），純〔4〕佳（惟）敬市（斯），文〔5〕非敷（陳）〔6〕市（斯），不 顛（墜）貞（攸）〔7〕彥〔8〕。”

亂曰：“佗（訖）我敬之，弗市（其） 顛（墜）哉，思豐〔9〕市（其）復〔10〕，佳（惟）福思甬（用）〔11〕，〔12〕黃句（耆）佳（惟）程〔13〕。”

【주석】

〔1〕整理者(2012): 彌敢은 ‘弗敢’의 통가로, 감히 ~할 수 없다는 뜻이다. <左傳·文公十八年>에 “弗敢失隊。(감히 실추시키지 않고)”라는 구절이 있다.

〔2〕整理者(2012): 荒德은 덕을 폐하다는 뜻이다. <書·盤庚中>에 “明聽朕言，無荒失朕命(나의 말을 분명히 듣고 나의 명(命)을 폐하거나 잃지 말라)”는 구절이 있는데, 孔<傳>에 “荒은 폐하다는 뜻”이라고 했다.

〔3〕整理者(2012): “隳”은 ‘墮’의 이체자로 ‘惰’의 통가다. <左傳·襄公三十一年>에 “惰而多涕(불경했으나 눈물을 많이 흘렸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杜預<注>에 “惰는 공경하지 않다는 뜻”이라고 했다.

〔4〕整理者(2012): 純은 선하다로 해석된다. <周頌·維天之命>에 “於乎不顯，文王之德之純。(아아, 밝기도 하여라. 문왕의 선한 덕이여)”라는 구절이 있고, <史記·漢興以來諸侯年表>에 “非德不純，形勢弱也(이것은 결코 주왕실의 덕이 선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힘이 쇠약해졌기 때문이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索隱>에 “純은 선하다는 뜻”이라고 했다.

〔5〕文은 글귀나 문사(文辭), 낱말과 문장(詞句)을 말한다. <國語·楚語上>에 “若是而不從，動而不悛，則文詠物以行之。(만일 이같이 교도해도 듣지 않고 행동에 잘못이 있는데도 고치지 않으면 文辭로써 諷諫하여 그를 교도하고)”라는 구절이 있는데, 韋昭<注>에 “文은 글귀나 문사(文辭)를 말한다. …… 文辭로써 사물에 기탁하여 諷諫하고 행하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6] 敕은 ‘陳’의 古字로, 진술하다, 서술하다의 뜻이다.

[7] 尙는 ‘攸’의 통가로, 조사로 ~한 바(所)의 뜻이다.

[8] 彦은 좋다, 아름답다의 뜻이다. 《尙書·立政》에 “我則末惟成德之彦, 以乂我受民. (우리 주나라는 끝내 아름다운 덕을 지닌 사람으로 하늘로부터 물려받은 우리의 백성들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孔穎達 <疏>에 “彦訓爲美.(彦은 美로 풀이된다)”고 했다.

[9] 豐은 후하다, 풍성하게 하다의 뜻이다. 《國語·周語上》에 “樹於有禮, 艾人必豐. (예를 아는 제후에게 은혜를 베풀면 얻게 되는 보상이 반드시 풍후해질 것입니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韋昭<注>에 “豐은 후하다의 뜻”이라고 했다.

[10] 復은 대답하다, 답하다의 뜻이다. 《管子·中匡》에 “管仲會國用, 三分之二在賓客, 其一在國. 管仲懼而復之. (관중이 나라의 재정을 통계하여 보니, 2/3의 재정이 외국 빈객에게 쓰이고 나머지 1/3이 나라의 사무에 쓰였다. 관중이 놀라 환공에게 보고하였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尹知章<注>에 “復은 말하다의 뜻”이라고 했다.

[11] 黃傑(2013): ‘甬’은 ‘用’의 통가로 추정되며, 이 문장에서 일반적으로 쓰인 ‘甬’의 용법이다.

[12] ‘惟福思用’은 바로 ‘惟用思福’이다.

[13] 黃傑(2013)은 ‘程’이 본 글자로 사용되었다고 했는데, 본받다의 뜻이다. 《詩經·小雅·小旻》에 “哀哉爲猶, 匪先民是程. (슬프다, 정책을 펴는 꼴이여! 옛 분들을 본받지도 않고)”라는 구절이 있는데, 孔穎達<疏>에 이를 “非用古人是爲法.”라고 풀이했다. 여기의 ‘黃耆惟程’은 바로 ‘惟程黃耆’이다.

【번역】

제9장 啓: “오호! 감히 덕을 게을리 하고 폐할 수 없다네. 자신의 덕을 수양하는 데 한시도 게을리 할 수 없다네. 매사 모든 것에 조심하고 신중해야 하나니. 언사는 단지 진술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아하고 아름답게 말해야 한

다네.”

제9장 亂: “나는 늘 언사를 중요시 한다네. 언사에 과오를 범하지 않아서 더 풍성한 보답을 받기를 바란다네. 더 많은 복을 얻으려면 지혜가 많은 노인들의 말을 본받고 따라야 한다네.”

4. 맺음말

중국고대, 즉 선진시기의 시가는 樂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으며, 樂과 詩, 歌, 舞는 종종 개별적이라기보다 서로 밀접히 연계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¹⁶⁾ 한편 樂은 주왕조의 통치자들에게 있어 종종 禮, 刑, 政과 함께 치국평천하의 수단이었으며¹⁷⁾, 따라서 樂의 주요 구성요소가 되었던 詩에는 통치자의 스스로에 대한 경계와 대신들에 대한 훈계, 왕업의 공덕에 대한 찬미, 성취한 업적의 표상 등이 자주 등장한다. <周公之琴舞>도 樂과 詩, 歌, 舞를 종합해 이와 같은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하겠다. 이번 <周公之琴舞>의 발견이 특별히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끄는 것은 수록된 시들을 볼 때 현존 《詩經·周頌》과 관련성이 높다 할 수 있는 본 문헌이 온전한 고대 악장형식을 보여주는 점과, 이를 통해 《詩經》頌詩의 용도 및 이의 樂舞와의 관계에 대해 다시금 인식하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 1차 연구 성과에 포함되었던 <耆夜>¹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周公之琴舞>의 발견은 학계로 하여금 《詩經》의 流傳, 編訂過程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보게 하고 있다.

16) 《樂記·樂本》에, “樂은 노랫가락으로 구성된 것이다.”라 했으며, “여러 노랫가락으로 조합되고 구성된 곡조를 악기로 연주하고, 다시 그 위에 干, 戚, 羽, 旄를 잡고 춤추는 것을 樂이라 한다.”고 했다. 중국고대의 禮, 樂, 舞에 대해서는 김학주(2012, 2009)에서 자세히 논하고 있다.

17) 《樂記·樂本》에, “禮, 樂, 刑, 政의 궁극 목적은 단지 하나니, 곧 백성의 마음을 한데 모아 사회를 안정시키고 태평하게 하는 것(禮樂刑政其極一也, 所以同民心而出治道也.)”이라고 했다.

18) 이연주·張崇禮(2014b)에서 주해하였다.

본고에서는 상기 분야들이 해당 분야의 연구자들이 개별적으로 깊이 연구하고 있는 영역인 만큼 이들에 대해서는 개괄적인 소개에 그치고 <周公之琴舞>의 내용을 주해하는 데 보다 초점을 두었다. 본고를 통해 <周公之琴舞>가 국내의 관련 분야 연구자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이들의 추가 연구와 활용이 있기를 기대한다.

< 參考文獻 >

- 李學勤主編, 《清華大學藏戰國竹簡(三)》, 上海: 中西書局, 2012.
- 陳偉武, <讀清華簡<周公之琴舞>和<芮良夫毖>零笥>, 清華簡與《詩經》國際學術研討會論文(香港浸會大學 2013.11.01.-03).
- 陳致, <讀<周公之琴舞>笥記>, 簡帛網, 2014.04.26.
- 陳致, <清華簡<周公之琴舞>中“文文其有家”試解>, 《出土文獻》第3輯, 2013.03.
- 方建軍, <論清華簡“琴舞九純”及“啓、亂”> 復旦大學出土文獻與古文字研究中心網, 2014.08.27.
- 胡敕瑞, <讀<清華大學藏戰國竹簡(三)>笥記之二>, 清華大學出土文獻研究與保護中心網, 2013.01.05.
- 胡敕瑞, <讀<清華大學藏戰國竹簡(三)>笥記之三>, 清華大學出土文獻研究與保護中心網, 2013.01.07.
- 胡敕瑞, <讀<清華大學藏戰國竹簡(三)>笥記之四>, 清華大學出土文獻研究與保護中心網, 2013.01.07.
- 黃傑(2013a), <初讀清華簡(三)<周公之琴舞>筆記>, 簡帛網, 2013.01.05.
- 黃傑(2013b), <再讀清華簡(三)<周公之琴舞>筆記>, 簡帛網, 2013.01.14.
- 黃晔晔, <<周公之琴舞>笥記三則>, 孔子2000網站, 2013.01.05.
- 黃晔晔, <<周公之琴舞>初探>, 《深圳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2013:6期.
- 季旭昇(2013a), <《毛詩·周頌·敬之》與《清華三·周公之琴舞·成王作敬毖》首篇對比研究>, 第四屆古文字與古代史國際學術研討會會議論文, 2013.11.
- 季旭昇(2013b), <<周公之琴舞·周公作多士毖>小考>, 清華簡與《詩經》國際學術研討會論文(香港浸會大學), 2013.11.01.-03.

- 簡帛論壇,〈清華簡〈周公之琴舞〉初讀帖〉,簡帛網,2013.01.05.
- 李銳,〈讀清華簡3筓記(三)〉,孔子2000網站,2013.01.14.
- 李守奎(2012a),〈清華簡〈周公之琴舞〉與周頌〉,《文物》,2012:8期.
- 李守奎(2012b),〈〈周公之琴舞〉補釋〉,《出土文獻研究》第11輯,中西書局,2012.12.
- 李守奎,〈先秦文獻中的琴瑟與〈周公之琴舞〉的成文時代〉,《吉林大學社會科學學報》,2014:1.
- 李學勤,〈新整理清華簡六種概述〉,《文物》,2012:8期.
- 李學勤,〈論清華簡〈周公之琴舞〉“寔天之不易”〉,《出土文獻研究》第11輯,中西書局,2012.12.
- 李學勤(2013a),〈論清華簡〈周公之琴舞〉的結構〉,《深圳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2013.01.
- 李學勤(2013b),〈讀〈周公之琴舞〉小記〉,清華簡與《詩經》國際學術研討會論文(香港浸會大學),2013.11.01-03.
- 李學勤,〈再讀清華簡〈周公之琴舞〉〉,《紹興文理學院學報》(哲學社會科學版),2014:1期.
- 劉麗文·段露航,〈清華簡〈周公之琴舞〉對《詩經》流傳與編定的啓示〉,清華簡與《詩經》國際學術研討會論文(香港浸會大學),2013.11.01-03.
- 劉麗文,〈清華簡〈周公之琴舞〉與孔子刪《詩》說〉,《文學遺產》,2014:05期.
- 馬楠,〈試說〈周公之琴舞〉“右帝在路”〉,《出土文獻》第4輯,2013.12.
- 沈培(2013a),〈《詩·周頌·敬之》與清華簡〈周公之琴舞〉對應頌詩對讀(一)〉,中國文字學會第七屆學術年會論文(吉林大學古籍研究所),2013.09.21.-22.
- 沈培(2013b),〈《詩·周頌·敬之》與清華簡〈周公之琴舞〉對應頌詩對讀(二)〉,清華簡與《詩經》國際學術研討會論文(香港浸會大學),2013.11.01-03.
- 蘇建洲,〈初讀清華三〈周公之琴舞〉、〈良臣〉筓記〉,簡帛網,2013.01.18.
- 徐正英(2014a),〈清華簡〈周公之琴舞〉與孔子刪《詩》相關問題〉,《文學遺產》,2014:5期.
- 徐正英(2014b),〈清華簡〈周公之琴舞〉組詩對《詩經》原始形態的保存及被楚辭形式的接受〉,《文學評論》,2014:4期.
- 王志平,〈清華簡〈周公之琴舞〉樂制探微〉,清華大學出土文獻研究與保護中心網,2013.06.05.
- 吳雪飛,〈清華簡(三)〈周公之琴舞〉補釋〉,簡帛網,2013.01.17.
- 無語,〈釋〈周公之琴舞〉中的“彝”字〉,簡帛網,2013.01.16.

- 姚小鷗·楊曉麗, <<周公之琴舞·孝享>篇研究>, 《中州學刊》, 2013:7期.
- 姚小鷗·李文慧, <<周公之琴舞>諸篇釋名>, 《中國詩歌研究》, 2013:0期.
- 姚小鷗·孟祥笑, <試論清華簡<周公之琴舞>的文本性質>, 清華簡與《詩經》國際學術研討會論文(香港浸會大學), 2013.11.01.-03.
- 顏世鉉, <清華簡(參)筭記一則>, 清華簡與《詩經》國際學術研討會論文(香港浸會大學), 2013.11.01.-03.
- 楊坤, <跋清華竹書<周公之琴舞>>, 簡帛網, 2014.01.08.
- 楊樺, <清華簡<周公之琴舞>及其德政思想>, 《長江大學學報》(社科版), 2014:6期.
- 趙敏剛, <<周公之琴舞>的組成、命名及表演方式蠡測>, 《文藝研究》, 2013:8期.
- 宗靜航, <<周公之琴舞>與《詩經》異文和經傳解釋小識(初稿)>, 清華簡與《詩經》研究國際會議論文(香港浸會大學), 2013.11.01.-03.
- 子居, <清華簡<周公之琴舞>解析>, 《學燈》第29期, 孔子2000網, 2014.01.04.
- 김학주 역저, 《새로 옮긴 書經》, 서울: 명문당, 2012.
- 김학주 역저, 《새로 옮긴 詩經》, 서울: 명문당, 2010.
- 작자미상저, 한홍섭 역, 《예기·악기》, 서울: 책세상, 2007.
- 저우스핀 저, 김영수 역, 중국사 강의, 서울: 돌베개, 2006.
- 좌구명 저, 장세후 역, 《춘추좌전》, 서울: 을유문화사, 2012.
- 최남규, 《상해박물관장전국초죽서: 공자시론》, 서울: 소명출판사, 2012.
- 김석진, <중국 清華大學 소장 戰國시대 竹簡>, 《목간과 문자》 7호, 2011.
- 김학주, <『시경』을 중심으로 본 중국 고대의 예·악·무>, 《한국무용사학》 13호, 2012.
- 김학주·김순희·이현정, <계찰관악(季札觀樂)을 통해 본 '악(樂)'의 의미와 지향>, 《중국문학》 64집, 2010.
- 성시훈, <文獻의 원형과 인용, 그리고 재창조—清華本 『傳說之命』의 내용과 사상적 경향을 중심으로>, 《유교사상문화연구》 56, 2014.
- 吳萬鍾(2013a), <<清華簡·周公之琴舞>之啓示>, 《中國人文科學》 54輯, 2013.
- 오만중(2013b), <<大武>樂章論考>, 《中國人文科學》 55輯, 2013.
- 이연주·張崇禮(2014a), <清華簡<傳說之命>주해>, 《중국학논총》 46집, 2014.11.
- 이연주·張崇禮(2014b), <清華簡<耆夜>주해>, 《중국학논총》 47집, 2015.02.

< Abstract >

Zhougong zhi Qinwu(<周公之琴舞>) is one of the ten old documents contained in the 3rd release of Tsinghua Bamboo Slips(清華簡) - a collection of Chinese texts dating to the Warring States period, which was acquired in 2008 by Tsinghua University. It contains 19 newly discovered poems (across 10 chapters) of the pre-Qin period by Zhougong(周公) and King Cheng(成王), among which one is almost identical to an ode in the Zhou Hymns(<周頌>) section of the Book of Odes(《詩經》). It shows a complete form of a movement of music and has notes like “啓(opening)” and “亂(ending)”. This paper introduces the content and meaning of Zhougong zhi Qinwu(<周公之琴舞>) and makes an exergesis of it. Zhougong zhi Qinwu(<周公之琴舞>) is a very important document in studying the tradition of music and dance of the pre-Qin period. Its discovery lets us to recognize anew the use of Hymns in the Book of Odes and their relation with music and dance. It also directs our attention to Sima Qian’s claim that the Book of Odes was compiled by Confucius.

Key words: Warring States Bamboo Slips(戰國竹簡), Tsinghua Bamboo Slips(清華簡), Zhougong zhi Qinwu(周公之琴舞), Book of Odes(詩經), Zhou Hymns(周頌), Zhou Hymns Jingzhi(周頌·敬之), Qi(啓), Luan(亂)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5. 6. 30.	2015. 7. 14.	2015. 7. 18.	2015. 8. 3.	2015. 8. 31.